

더 이상 유약한 野 아나... '촛불'로 초강경 승부수

■ 김한길 장외투쟁 돌입 배경 및 향후 전망

국정원 사건·대화록 실종 등 규명 난관 가두홍보·서명운동 등 전국으로 확대

민주당이 끝내 장외투쟁을 선택했다. 1일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대대적인 '거리 정치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촛불집회에 당 참여를 거쳐 동력을 모은 뒤 장외투쟁에 본격 나설 것이란 관측을 넘어선 초강경 선택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2011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후 1년8개월 만이다. 2009년 7월에도 당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 적이 있다.

○배경=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투쟁 선언의 배경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고, 경찰은 이를 은폐· 축소했으며, 검찰수사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자 국정원이 국회의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경회담 회의를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을 외면하고 애써 눈을 감고 있고 새누리당은 진실의 촛불을 가리고 국정조사를 회피하는데 전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새누리

당은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30일을 파행시켰다. 세 번의 파행과 20여 일간의 국정조사 중단, 증인 채택 거부로 인해, 더 이상 국정조사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심지어 이런 위중한 상황에도 여론유가를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모면하려는 여당의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 김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 개혁 등을 3대 구호로 내세우며 원내 투쟁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국정원 국조 정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정국으로 가더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으로 이어지는 등 정국의 방향이 애초 의도와 달리 가면서 야당으로서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지도부의 유약한 대응에 대해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전날 박지원 전 원내대표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그 전날에는 조선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망=민주당은 우선 서울광장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천막을 치고 가두홍보전과 서명운동 등을 전국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체제 돌입해 원내외 투쟁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연행뉴스

단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보 '호의' 및 차양 스티커 제작도 준비 중이다. 첫 날인 1일 서울광장에서 현장 의총을 갖는다. 김 대표가 이 투쟁을 진두지휘하며 전면에 나섰다.

이 같은 민주당의 투쟁 방침에 따라 정국은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284개 시민사회단

체로 구성된 시국회의가 오는 8월3일 개최하기로 한 5차 촛불집회에서 적극 참여하며,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4인방 증인' 채택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오는 10일 시민사회단체들과 대규모 촛불집회를 펼친다는 계획이어서 8월 정국은 더없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공기관 122곳 지방대생 채용 정부 목표 비율 30%에 못미쳐”

민주 박혜자 의원 분석

정부가 지방대 졸업생 등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공공기관의 절반은 정부가 세웠던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혜자(서구을)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 사이트에 공개된 '2012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85개 공공기관 중 42.8%인 122개 기관이 정

부가 제시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인 30%를 달성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8월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정원의 30%까지 채용하겠다고 밝혔었다. 특히 목표에 미달한 122개 공공기관 중 84개 기관은 오히려 2011년보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이 감소하거나 지역인재 채용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2개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를 분석하면 결과는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각각 2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창



조과학부(13개), 산업통상자원부(12개) 순이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한 23개 기관이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했고, 이 23개 기관의 채용 비율은 평균 4.96%로 매우 낮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책이 그저 구호에 그쳤을 뿐 성과는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기관 경영평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국비사업 전환해야”

광산구의회 박삼용 의원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광산구의회 박삼용 의원(송정1·2·도산동·동곡동)은 지난 31일 “광주시가 최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개발을 위해 2300여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써서회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민간사업자인 써서회건설 컨소시엄이 기존 환승터미널과 주차장 시설 외에 대형유통판매시설 등 상업적인 시설까지 건립하면 송정역 주변 상권이



몰락하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송정역 주변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송정역 역사 건립’을 위해 현재 확보하고 있는 524억원을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주차장, 물류저장소 설치사업에 투입하고, 15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복합환승센터를 추가로 조성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안멘토’ 최장집 이사장·민주 의원들 설전

“의원이 1인 정당 역할하는 민주당은 프랜차이즈정당” VS

“安, 경제민주화 해법없어 반사이익 노리는 구경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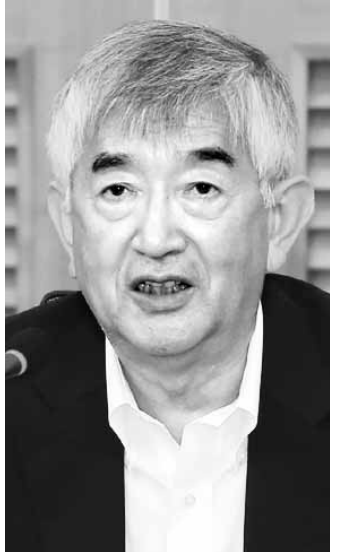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서로 비판하며 설전을 벌였다.

최 교수가 민주당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안 의원에 직격탄을 쏟아낸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연구모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최 교수가 민주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게 발단이 됐다.

최 교수는 이날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관련, “갈등의 결과가 파괴적일 것을 예상하면서도 양당이 정치를 합약한 갈등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치의 기술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며 “정치의 퇴행”, “정치인의 자기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정치를 선악의 도덕투쟁, 제도적 투쟁으로 접근하는 ‘정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 “야당이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하지 못해 정부가 책임정부의 역할을 받기 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면서 “구심점을 갖지 못하고 각 의원이 1인 정당의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 정당’”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의 NLL정국 대응과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권력 행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NLL 논쟁에 집중해 다른 문제를 돌보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최재성 의원은 “안 의원의 정치는 초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법이나 어떤 제치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관통하는 하나의 노선적 흐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특히 안 의원의 NLL 정국 대응과 관련, “과편적, 단편적 지적은 성공하지만, 제도권 정치라면 지적을 넘어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구경꾼으로 지켜보다가 너희끼리 싸워서 나라가 엉망”이라며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이라며 가세했다.

유승희 의원은 민주당의 ‘기초선 거점공천 폐지’ 당론 결정이 안 의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새 정치의 프레임이 정당정치를 혐오하고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피리를 무는 비판에 직접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투쟁성도 중요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할 중요 요점은 정당의 능력”이라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 교수는 또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 안정이라는 2가지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민주주의 안정이라는 한 이슈에만 투쟁력을 집중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이슈에 집중하지 않게 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료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3층, 4층 시네마 분양완료 CGV 영화관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료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만원 / 분양가 5억75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 하나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만원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지상 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만원
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	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	지상 3층~4층	영화관 분양 및 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림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